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一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趙膏藥

對新政權方策說明次 五黨首會合開催決定
十三日午後首相官邸서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懸案의 在野五黨首會合을 十三日午後三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키로 決定하고 十一日 町田民政、久原、中島兩政友、安達國同、安部社大五黨首에 對하여 招請狀을 發하엿다 當日 政府側으로부터 阿部首相、野村外相、青木藏相、畑陸相、吉田海相이 出席、首相으로부터 지난八日 閣議에서 決定된 支那新政權에 對한 基本方策內容에 關하여 說明하고 諒解를 求하기로되엿다

首相、文相과會見……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은 十一日午前十一時 首相官邸에서 河原田文相과會見、時局問題에 關하여 여러가지로 意見을 交換하고 政友會의 久原房之助氏도 內閣參議會開會前 阿部首相、遠藤書記官長과會見、時局問題에 關하여 여러가지로 懇談을 거듭하엿다

政局安定圖謀가急務
重臣對政局意見一致
政府의對處策만이注目處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의 最後的決意에 依하여 政局一新에따른 善後收拾問題는 重臣의손에 옴아 十日近衛樞相이 湯淺內府와會見하고 重要協議를한것을爲始하여 急迫한政局을 圍繞하고 重臣方面의 往來는더욱 頻繁을 加하게되엿는데 重臣方面의意向은 支那事變處理의 重要新展開를압헤두고 我政局의轉換이 內外에미치는影響은 極히深刻한意義를가지는것이라하여 하루바삐 政局의安定을 圖謀하라는데 意見이 一致되엿다 그리고政界各方面은 强力政治의實現을 要望하고잇는데 果然重臣이 이要望에 對處하여 어떠한對策을 取할는지 이 數日동안 重臣의動向은 極히注目된다

井關、七田兩中將 十一日午前參內

【東京電話同盟】大陸山野에서 赫赫한武勳을樹立하고이번歸還한陸軍中將井關隆昌、同七田一郞兩將軍은 十一日午前九時宮中에參內 表御座所에서 天皇陛下께 拜謁 兩將軍으로부터 在任中軍狀을仔細히 奏上하엿는데 陛下께옵서는 優渥하옵신御嘉賞의말슴을 賜하옵섯다고한다 그리고 이날海軍作戰에 活躍하고 歸還한 桑原虎雄海軍少將도參內 天皇陛下께拜謁正午南溜間에서一同에茶菓를 賜하옵섯는데 恐懼感激하여 退下하엿다

定例參議會

【東京電話同盟】十一日의 定例內閣參議會는 午前十時十五分 首相官邸에서開催 政府側으로부터 阿部首相、參議側鄕參議缺席한外 全參議 出席裡에 먼저 阿部首相으로부터 十三日 樞府本會議에上程될 日蘇漁業條約 暫定協定締結經過及結果를報告한後 汪精衛氏를 中心으로한 支那新中央政權樹立에伴한 帝國의 基本方策을 비롯하여 支那新政權樹立까지의 豫測等에關하여 詳細說明、報告하고 首相退席後 各參議가남어서 여러가지懇談을거듭한後 正午散會하엿다

柳川長官 十一日南京에

【上海十一日發同盟】柳川興亞院總務長官은 十一日부터 南京에서 開催되는 興亞院連絡部長官會議에 出席하기爲하여 十日來滬一泊한後十一日午前九時半飛行機로 南京에向하엿다

支那의將來는 繁榮한다
英總領事談

【上海十一日發同盟】近近引退歸國하는 上海英國總領事 서·하버트·파리프스氏는 十日夜 上海在留英國居留民의 送別會席上에서 一八九八年에 처음支那에赴任한 以來의歷史를 回顧하고 支那의 將來의繁榮을 말하여 多大한注目을끌엇다

萬若 極東에和平이回復되는날에는支那는 中立國의繁榮을 享受하여 過去二年間에亘한 損害를 償還할수잇다고하여도 過言은 아닐것이다 上海가얼마나 經濟的回復力을 가지고잇는가는 一九三二年의 第一次上海事變後의 例로비추어보아도알수잇다 事變後僅僅五年間에는 支那의 다른都市에서 아직經驗치못한 「붐」을現出한것은 上海의生命力을 잘說明한것이라고할수잇다 그러나 一九三七年의 第二次 上海事變의 激動은 一九三二年의 그것보다 컷섯이며 이激動은 上海에만 그치지아니햇다 戰爭은 揚子江上流까지 뻐처 上海의 輸出에依存하는 奧地에까지 波及되엇다 現在狀態를 이가튼 情勢에잇는것은 매우困難하나 그러나希望이 업는것은아니다 現在歐洲戰爭의 支那에波及하는 影響은 特히 英國의對支貿易에對한影響은 甚大한것이 잇다 그러나 極東에再次平和가 達成되는날이면 支那는 非常한繁榮을享受하게될것이다

職業紹介令全文 (十一日公布)

朝鮮總督府에서는 朝鮮內勞務需給調整을 期하여 主要職業紹介所를 國營으로 移管하고 全朝鮮職業紹介事務의 連絡을 統一强化케되어 여게伴한 朝鮮職業紹介令은 十一日制令으로 公布되엇는바 同令은 다음과갓다

朝鮮職業紹介令

第一條 政府는勞務의 適正한配置를圖하기爲하여 本令에依하여 職業紹介事業을營함

第二條 政府는職業紹介事業과함께 職業指導及必要에應하여 職業補導其他職業紹介에 關한事項을行함

第三條 府邑面은 朝鮮總督의定하는바에依하여 職業紹介事業을行함을得함

第四條 府邑面이아닌者로 職業紹介事業을 行코저할때는 朝鮮總督의定하는바에依하여 道知事의許可를바듬이可함

第五條 勞務供給事業을 行코저하는者又는 勞務者를 雇傭하기爲하여 勞務者의 募集을行코저하는者로서 朝鮮總督이定하는것은 朝鮮總督의 定하는바에依하여 朝鮮總督又는 道知事의 許可를 바듬이 可함

前項의 勞務供給事業及勞務者의 募集에關한 必要한 事項은 朝鮮總督이 此를 定함

第六條 道知事는 第四條의規定에依한 許可를 받은者에對하여 그業務에關한 報告를徵하고 又는 當該官吏로하여곰 事業을하는場所에 臨檢하여 業務의 狀況又는 帳簿書類其他의 物件을 檢査시킬수잇슴 이境遇에는 當該官吏로하여곰 그 身分을表示하는 證票를 携帶시킬것

第七條 左各號의一에該當하는者는 六月以下의懲役又는 五百圓以下의罰金에處함

一、第四條의規定에依한 許可를받지안코 有料又는營利를目的으로하는職業紹介事業을한者

二、第五條의規定에依한 許可를받지안코 勞務供給事業을 한者又는勞務者의 募集을한者

第八條 第五條의規定에依한許可를받지안코 勞務者의募集을한者는 百圓以下의罰金又는拘留에處함

第九條 法人又는 人의代理人、使用人其他從業者가 그法人又는人의業務에關하여 前條에違反하는行爲를할때는 그法人又는人은 自己의指揮에 나오지안흠을 理由로하여 그處罰을免하지못함

第十條 本令의罰則은 其者가法人인時는 理事其他의 法人의業務를 執行하는役員에 未成年者又는 禁治産者인時는 그法定代理人에 이를適用함 但營業에關하여 成年者와同一한能力을가진 未成年者에關하여는 此限에不在함

第十一條 前二條의罰則에는 懲役又는 拘留刑에處하게함을不得함

第十二條 本令은船員의 職業紹介에는 이를適用치안함 船員의職業紹介에關하여 必要한事項은 朝鮮總督이此를定함

附則

本令施行期日은 朝鮮總督이 이를定함

本令施行時에 現在第四條規定에依하여 許可를바든 職業紹介事業을行하는者及第五條의規定에依하여 許可를바든 勞務供給事業又는 勞務者의募集을行하는者는 本令施行後一月以內에 朝鮮總督의定한바에依하여 朝鮮總督又는道知事에 許可를申請함을要함

前項의者는 前項의申請에對한 許可又는不許可의 處分이잇슬때까지 그事業을行함을得함

괌島武裝問題로 米國內輿論沸騰

【華盛頓十日發同盟】스타크作戰部長의 證言을 圍繞하고 괌島武裝化問題는 果然米國政界의 注目을끌게되엇는데 이에關한 論議를 綜合하면 現在의情勢는 大要다음과갓다

괌島武裝이라고하여도 이는主로 全島의港灣修築을하려는것으로 大砲備置、要塞의 構築等純粹武裝은 아니요 防波堤新築과 港內浚渫에 四百萬弗의 經費支出을 要求한것이다

一、그리고 右經費는 海軍의 議會의 確定協贊事項으로할必要가업다고하여 通常豫算中에서 地方海軍區經費로부터 流用하려고 하고잇는데 뷘손海軍委員長이 議會手續上疑義를 認定하고 이點을 審査에上程하겟다고言明하엿다

一、그러나 一方윌슨上院海軍委員長은九日에디손海軍長官、스타크作戰部長과의 會見後記者團에 對하여 議會는 此際괌島를 爲하여 約四百萬弗을支出하는것이 至當할것이고 米國으로서는 東西모두 될수잇는限 멀리 警戒所를 擴張시키는것이 國防上 必要하다고말하여 議會도 明於코 이問題를 取消하려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示唆하엿다

보라上院議員等 괌島防備에反對

【華盛頓十日發同盟】스타크新作戰部長이 九日 下院海軍委員會에서 闡明한 괌島再武裝案에對하여는 벌써各議員으로부터 猛烈한反對가 일어낫는데 同案反對의急先鋒인 보라共和黨上院議員은 十日괌島武裝은 日本에對한挑戰的 行爲라고非難하여 다음과가치말하엿다

나는스타크新作戰部長이 提出한 新海軍豫算要求에對하여 糾明의質問을할意向이다 웨그러냐하면 괌島武裝은日本에對한 挑戰的行爲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米、陸軍增强을 마샬陸軍參謀次長要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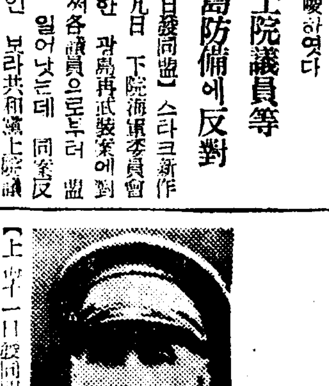
【華盛頓十日發同盟】十日의 下院豫算委員會公聽會에서 스타크作戰部長은 米國海軍의 平時兵力을 現在의 十二萬三千으로부터 十四萬五千人으로 增員하기를 提案한一方 마샬陸軍參謀次長도 證言을하여 米國陸軍軍備에 對하여 다음가치 論述하엿다

米國陸軍은 世界各國 陸軍에 相伍하여 第十九位에 잇는데 米國陸軍의 現在軍備는 平時國防의必要에도 不充分하다

괌島武裝案에 贊否兩論對立

【華盛頓十日發同盟】스타크海軍作戰部長의 證言을 契機로 괌島武裝問題는 本會議에서 再燃되어 贊否兩論의 激論을 이르키고

蔣介石戰線出動
廣西軍抗戰督勵次



【上海十一日發同盟】外人側消息에依하면 冬期攻勢는도리어 日本軍의反擊을바더 苦戰에빠진 廣西軍督戰을爲하여 蔣介石은 數日前桂林에와서 目下同地에서 自身이指揮를 하고잇다고 한다 (寫眞은 蔣介石)

重慶政府資運輸改善 水陸委員會設置

【上海十一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重慶政府行政院은 非常時下의 水陸物資運輸를 改善하여 能率을 增進시키기爲하여 交通部、軍政部、財政部、經濟部、航空委員會、運輸總司令部、兵工署、貿易委員會、西南輸出入物資運輸總經理署等 各機關으로 하여곰水陸運輸聯合設計委員會를 組織시키고 水陸運輸에 關한廣範圍의 事務를擔當시키기로되엇다

匈、勃兩國要求에 羅國讓步的態度?
經濟的協調를言明

【부다페스트十日發同盟】伊匈兩外相의 베네치아會談을 契機로하여伊太利의 外交工作이積極化하여 伊太利가 蘇聯의 南下에 備하여 反蘇聯陣營을結成코저 東南歐諸國의 紛爭問題解決에 注力하기로되엇다고하는데 羅馬尼亞官邊은 十日匈牙利와의 懸案을解決할意思가잇는것을 如左히말하엿다

羅馬尼亞는 領土的讓步를 目的으로하는解決을 受諾할수는업스나 匈牙利와의間에 國交改善을爲하여 經濟的讓步 其他兩國의 協調를 希望하고잇다

一方 부하레스트의 外交界消息에따라 匈勃兩國의 對羅馬尼亞失地回復要求에 讓步하게되리라고 如左한 觀測을하고잇다

伊太利는 萬若 蘇聯이 羅馬尼亞에 비사라비아를 攻擊할境遇 伊太利及 匈牙利兩國은 羅馬尼亞를 援助를 保障하는 代價로서 羅馬尼亞는 匈牙利、勃牙利兩國에對한 接壤地域의 割讓을 要求하는案을 支持하고잇는데 羅國王카롤二世는 結局머지안하여 右案에 讓步하게될것이라고

臨時政府情報處 責任處分發表

【北京十日發同盟】臨時政府는十日附로써 行政委員會 情報部長周二惠氏의職、情報部第一科長張鉦、第四科長 潘百新兩名의免職을 發表하엿다 右는臨時政府公報의 發行에 關한責任을 진것으로서 直接關係者인 張第一課長 第四 兩科長의 免職 周部長은 上司로서監督不充分하엿든 理由에서 免職이된것이다 그리고行政委員長 王克敏氏는 直屬官署內에發生한 이事件에關하여 政府에對하여 責任을 分明히하라고 要請하엿다

獨軍英機九機擊墜
獨空軍省北海空中戰果發表

【伯林十日發同盟】獨逸空軍省은 十日北海上空에서의 英獨空中戰에關하여 다음과가치公表하엿다 最新式 獨逸軍用機四機는 十日午後一時 헤리골란드島 上空에서 브리스톨型 英國爆擊機九機를 遭遇하여 敵機는即時逃走를 꾀하엿스나 獨逸軍用機는 이를追擊하여 全機를 擊墜시키고 我機는 全機無事히基地에 歸還하엿다

獨空軍英蘭海岸偵察飛行

【伯林十日發同盟】獨軍司令部發表 九日午後、十日午前兩回에걸처 獨逸空軍戰鬪部隊는 잉글랜드及스코틀랜드 東海岸에對하여 偵察飛行을 敢行하엿는데 그때二隻의商船과 이를護送中인 哨戒艇二隻을 襲擊하여 이를擊沈하엿다 그리고스코틀랜드近海에서 突然四隻의武裝商船으로부터 高射砲의 射擊을입엇으나 我方은 即時이와交戰하여 모두擊沈시켯다

諾威商船 만크스號沈沒

【암스테르담十日發同盟】諾威商船만크스號는 十日오크니島東部에서 機雷에 觸하여沈沒하엿는데 乘組員七名은 附近航行中의 商船에 救助되엇다

英商船二隻沈沒

【倫敦九日發同盟】英商船오-크그로고號(一、九八五噸)及그란트스타號(一、〇二三噸)兩船은 九日獨逸空軍의 襲擊을바더 모두沈沒되엇다

北歐中立放棄策
英佛猛烈策謀
蘇聯機關紙眞相發表

【莫斯科特電】蘇聯國防人民委員部機關紙 크라스나야·스베즈다紙는 七日그社說에 「歐羅巴列强의 對芬蘭援助畫策」이라고題하여 英佛의스칸디나비아諸國에對한 最近의動向을 分析하여大要如左한論評을하엿다 英佛은 十二月中의 最高軍事會議에서 芬蘭에對한外交的、經濟的援助의決議를하엿다 英佛의 企圖는 매우疑心스럽다 英佛은 芬蘭援助를 憑藉하여 스칸디나비아諸國을 自己의陣營에 引入하려는 中立性을 放棄시켜 이와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려는 데 잇다 最近의 論文에는 이것을 立證하는것이 만타 그리고 同紙는 佛國의 有名한外交評論家 페르티낙스氏가 「瑞典及諾威로하여곰 英佛의陣營에 들게하는것은 目下의最大緊急事다」라고 率直하게 明言하고잇는 것을 引用하여 蘇聯으로서는 今後어떠한 方法으로라도 瑞典을 經由하는 武器彈藥、義勇軍派遣、瑞典의 芬蘭援助等을 阻止하여야 한다고 論述하고잇다

山東地區戰果

【濟南十日發同盟】山東地區의敵

上海郵政局側 軍票受入表明

【上海十一日發同盟】上海郵政局은 當分間軍票一圓에對해 法幣一弗十五仙(法幣百弗에對해 軍票八十圓의레이트)으로하고 錢以下의端數가생긴境遇는 一錢으로計算하는데 軍票의거스름돈에는法幣를使用하는 ... 그러나 軍票流通이 增加되는 現狀에鑑하여 今般軍票를 收入하기로되엇다 來十五日부터 實施키로되엇다 그러데 軍票換算率은

時事解說
「괌島」問題

스타크米海軍作戰部長은 九日 下院海軍委員會에서 괌島防備强化를 力說하고 一方新任海軍委員會에서 괌島防備强化에 關하는 豫算을 要求한 事實은 極東에對한 米國의 態度를 示唆하는 것이라하여 議會方面에 物議를 이르키고잇다 그러나 下院에서는 昨年一月 ...

[illegible]

外務省辭令

【東京電話同盟】
任外務書記官 大使館一等書記官 田尻愛義
大使館二等書記官兼領事 門脇季光
任外務書記官 東亞局第一課長을命함
外務書記官 任大使館一等書記官 中華民國在勤을命함 杉原荒太
興亞院書記官 陸軍主計少佐
兼任大使館二等書記官 中華民國在勤을命함 山田久就

人事·集會

▲由上治三郞氏(前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事務理事) 辭職後十一日午後四時京城驛發아까쓰끼로 出發歸鄕
▲井坂圭一良氏(總督府商工課長) 東京出張中十七日歸任豫定
▲申興彬氏(京城鑛工會社代表社員) 入京人事次來社備席投宿
▲朴一龍氏(同社員)同上

八面鋒

有志代議士會가 惜别、陸相이 陸軍總意表明、重臣이 出動、阿部首相도 心境에 變化가생긴듯。

◇

强硬派閣僚―불러노코 四圍情勢의 不可避한것을 說하고 政局一新을 決意햇다고。

◇

豫算이 成立되지안흐면 事變處理도 不進。今年度豫算範圍로 事變遂行이 안되는까닭。

◇

無力한 政黨들도 議會에한목을 보는군。

◇

伊匈이 同盟、獨蘇의 南下를 牽制하리라고。

◇

그런데 獨逸은 伊太利行動을支持。

◇

獨蘇는 結局 英佛에 對해서만 共同戰線、언제 두새가 버리저 干戈를 相交할지알리오。

◇

또 近近 獨逸의 和蘭侵入說이 頻傳。

◇

모두 獨逸을 不利케하는宣傳、果然 獨逸은 어찌할거나。

◇

潜航艇의 轉覆後 또 다시 潜航計畫이 잇섯다고。

◇

鬼畜가튼 뿌로카를 徹底膺懲하랑。

◇

短刀가 九道에 蔓延、六百餘名의 患者 發生。

◇

衛生當局의 不眠不休할 秋、一步도 率先 避하지말라。

太陽
月刊綜合雜誌

興亞維新に邁進せん……南次郞
皇紀二千六百年を迎へて……大野政務總監
創刊辭……主幹 徐椿
各界名士의祝辭
鹽原學務局長、韓相龍、八木本府事務課長、李本府社會教育課長、小幡少佐、喜多朝鮮軍參謀、滿朝鮮軍報道部員、方朝鮮日報社長、高一清、金鴻亮、金基衍、金相穆、孫弘遠
論文
近來에보기드문名論卓說의雄篇들
事變と言論機關の使命……山田秀雄
建國理想と日本精神……森田芳夫
扶餘の史蹟について……高畠弥一
國家總力戰의意義……扁山學人
歐洲動亂의眞相과前途……漢陽學人
事變處理와經濟의趨向……徐椿
電氣發達과人類의幸福增進……兪羌昌
偉人이되라면……金道泰
新春隨筆帖
清雲町의달밤……金晋燮
神溪寺의밤……金珖燮
편지……李孝石
편지……兪鎭午
天主堂……鄭芝鎔
마음카幻想……鄭人澤
天國……安夕影
風景·二題
新開通鐵道沿線風景……○先
列車通學生의風景……史文春
創作
北風……郭石亭作
文藝時評……林和
映畫雜感……徐光霽
詩·歌
琵琶行(白樂天作의譯)……金岸曙
물……異河潤
追憶外二篇……李秉岐
내가만일女子라면……鄭飛石
實益과趣味와를兼한唯一의社會讀本
定價四十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文化社
京城府光化門通
支社募集·本社直接問議

自養滋 鐵肝油
어린이에게滋養鐵肝油를먹이면、活性코로이드化된鐵과肝油가、消化、造血機能을促進식히며抵抗力을增强식히어恒常無病으로포동포동하게될니다
株式會社 工藤商店藥品部
東京市深川區佐賀町

朝鮮總督府看守募集
一、一月二十五日午前九時ヨリ全鮮各刑務所
二、二月二十一日午前九時ヨリ刑務官練習所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오케-레코-드
오케正月新譜

울며헤진釜山港
哀愁의기타
半島人傑作集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內臟外科 一般外科 肛門外科 レントゲン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一ノ一九九

ニキビ・ソバカスに
レポスキン

여드름으로 困難받는분
三輪博士創製・藥用クリーム

地稅의課稅對象變更 三個年計畫으로調查

職員六百名增加、八月까지準備完了

"稅額增加아님을理解하라"

지세(地稅)부담을고르고 안잣케하기위하여 조선에서도 종래지세를 지까(地價)에의하여 매어오든것을 임대가격(賃貸價格)으로고치기로 방침을결정하엿섯는데 총독부에서는 십오년도부터 삼개년계획으로 조사에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소요경비사백만원중 초년도분삼십팔만원을 요구중이더바 대장성의사정이 통과하엿스므로 지금조사할 시작할준비에 분망하고잇다 즉

현행지까는 소화십년에 시가지지까를 개정한것을 제하고는 농경지는모두 명치사십삼년부터 대정팔년까지 거의조사한것이기때문에 조사가 서투른것도 잇슬뿐아니라 그뒤임토지수익(收益)의사정도 대단히달러진것이 만흐므로 세금부담도 고르지못한것이만타 그래서 임대가격을기준으로한다는것은 연래의현안이엿고 내지에서는 벌써소화육년의지조법(地租法)에의하여 임대가격으로 고치고 소화십일년다시 전면적개정을 보앗다

임대가격조사는 이백칠십만오천정보의밧과 일백칠십오만여정보의논을 합하여 사백오십이만정보에 달하는방대한전답과 시가지및 하천부지 소작료와대지료(地代料)를 조사하는것이므로 여간거창한 조사가아니나 총독부에서는 저번 지까사정(地價査定)때와가튼 토지조사국(土地調査局)가튼것은 두지안코 중앙에서는 총독부재무국, 지방에서는 각세무감독국이 중심이되어 실지조사는 세무서에서하기로된다 이때문에 약육백명의 임시직원을 증원하여 팔월까지에 조사방법기타 구체적준비를마치면 구월부터 일제히조사를 시작할예정이다

그런데 지세의과세대상을 임대가격으로고치는것은 전혀지세부담의균형 적정을도모하도록하여 현재 지세총액일천삼백만원이라는 총액은 그대로두고 세률만을 임대가격에 의하여 고처결정하려는것이라고하여 이점을 잘이해하고 당국의조사에 일반은 정확한조사가되도록 협력해주기를바라고잇다 물론이조사에의하여 개별적으로는 토지의수익사정에따라 세금이 오를것도잇고 내릴것도 잇슬것이다

"調查에一般協力을"

稅金增徵의目的이아니다 村山總督府稅務課長談

임대가격조사에대하여 촌산총독부세무과장(村山稅務課長)은 다음과가치말한다

예산이 대장성을통과하여 오래동안의현안이 해결되게되엇다 한편으로실지로조사하는것이므로 삼년이나걸린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지세부담의균형 적정을도모하기위한것이고 증징(增徵)을목적하는것은아니다

지세는 지금도다른세금에비하여 비싼으로 이번세제개정에도 영업세, 자본이자세등의증징을도모하엿스나 지세는 그대로둔것이다 조사가시작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오해하지말고 협력하여주기바란다

조청도달기는일반?

砂糖注文代身조청이나사가라는回答밧고

쓴입다시는京城府、對策에苦悶

최근 경성시내에서 사탕이품귀해저서 일반 가정용으로는 물론이고 무엇보담도 과자나"케익"을 만드는집에서 사탕이업는탓으로 물건을 만들수가업는 형편이어서 모두가 비명을울리고잇는중이다 이가튼절박한 사탕기근을 완화하는한편 그동안 경성부에서는 부내여사탕의 요망에 보답하고저 얼마전부터 내지에잇는 제당회사(製糖會社)에 하루바삐 경성으로 사탕을보내여줄것을 독촉하고잇섯섯는데수일전 내지모제당회사로부터

『사탕은업스니 미안하나마조청을 사탕대신으로 써봄의향은업는가? 만약 의향이잇다면 얼마나소용될것인가를 알려달라』

라는의미의 회답이 도착되엇다

그래서 뜻밧게이가튼 회답을밧게된 부당국에서는 십일일오전·구시부터 부청의원회실(議員會室)에 경기도와경성상공회의소와 밋부내입자대표등 십여명을 금소집하고 이번회답을 중심으로 금후부내사탕기근을 어떠케 타개하여 나갈까에 대한 타개책에 대하여서 여러가지로 의견을 교환한바잇섯는데 이문제에 관한 금후의진전이 주목된다

出家한店員

自殺通知書

부내 원정(元町)일정목일백삼십번지 오야도기점(大野陶器店)에 점원으로잇든 목촌(木村)(?)은 수일전에 주인과의 어떠한관계가 탄로될것을염려하여 지난 구일열시쯤 상점을나간후 소식이업스므로 그상점에서는 부내각서에 의뢰하여 사방으로행방을찾고잇던중 십일일아침 본인으로부터 자기본집에서자살한다는유서가 우편으로 배달되어왓스나 어디서 자살을햇는지도 아직분명치안흐며 최근의생활이 곤란하게된것을 비관하고 죽은것이나아닌가 추측된다고한다

京畿道議補選

二月九日로決定

전도회의원 고마장부(馬場部)씨의사거에따르는도회의원보결선거는 오는이월구일에 하기로기간이결정되엇다

職業紹介所令

今日公布·今月中實施

五府의紹介所는國營에移管

총후의생산력확충(生擴)과 지하자원(地下資源)개발에따라 노동자는 날로만히가서 지금노동자의 수급을 조정하는것은 물자배급조정에 못지안흔중대성을가지고잇는것이다 따라서 총독부에서는 노무동원계획(勞務動員計劃)의 관계법령을 정비하고저 준비중이던바 십일일부 제령(制令)으로 조선직업소개령(朝鮮職業紹介令)을 공포하엿는데골자는

一、노무의적정한 배치를도모하기 직업소개사업은 총독부에서 전부통제관리하기로된것(第一條)

一、총독부자체가 스스로 직업소개사업을 할수잇는것과 직업지도를 할수잇는것(第一條) 이것은 국영직업소개소에서하게된다

一、도지사의 허가를 마러가지고 부、읍、면에서도 소개사업을 할수잇는것(第三條)

一、개인도 도지사의 허가를 바더가지고 소개사업을 할수잇고(第四條)종래는 조선이외로 가는 노동자를알선하거나 모집하는때만 허가를 마러야되던것을 이번에는 조선안의 노무공급사업(勞務供給事業)도 노무자모집도 모두 허가를 마러야된다(第五條) 그리고 법으로는 부、읍、면이나 개인을 물론하고 허가업시 소

원이 아닐뿐도든 파료이다 이번령은 이달중으로도 실시될예정인데 그와동시에 현재는부영(府營)인 경성 평양 대구 부산 신의주 함흥의여섯군데직업소개소는 국영(國營)으로 이관되고 남어지인천 군산 목포 청진(淸津)의 네군데는 십오년도에 이관될터이다 다소 창기 작부등 인사소개도 원측으로는 이번령에 포함되는것이나 시행규측(施行規則)에서 제외되어 종래대로 경찰의취체를 밧게될터이다

大竹內務局長談

이에대하여 총독부 대죽내무국장(大竹內務局長)은 십일일 다음과가치 담화를발표하엿다

현하조선의 군수(軍需)와 생산확충 기타 이와밀접한 관계가잇는 중요산업에 소용되는 노무는 해마다놀랄만치 늘어가고잇다 즉광산、공장과 토목건축방면에드는 노무자를 민속하고 적확하게 공급하는것은대단히 긴급한문제로서 이수요에 응하는 노무자원(資源)은 반드시 넉넉하다고는 말할수업는터이므로 이것을 적당히안배하여 요구에맛도록 하는것은 무엇보다도시급한일이다 즉 국가가하고잇는 모든정책에 순응케하기위하여 각종산업전사(戰士)의 동원에 유감업도록하는노무수급조정은 물자의조정과 병행하여 가장 중요시국안일로서 시국이 진전함에따라그 중요성은 더하여가고 잇는실정이기때문에 이획기적 제도의창설을 보게된것이다 그리고 이법령이 시행되는동시에 불원간 직업소개소관제가 공포될터이고 위선주요도시 육개소에 국영(國營)직업소개소를 두기로되엇는데 장차는 다른지방에도 점차 이것을 신설할방침이다 그리고 또이에대한 시행규측이 불원간 공포될터인데 이 제도의 운용에 당해서는 일반의 협력과 이해가 잇기를바라 마지안는바이다

女子青年團

여름까지에各地結成끗내고

가을에는大會開催

총독부에서는 남자청년단과대응하여 총후청년조선의 임무를 다하게하고저 전조선에 여자청년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작년팔월에 그설치에 대하여각도지사에게 통첩(通牒)을발하엿든바그후 각도의 조직성적이 자못양호하여 벌써 각도를통하여 약 절반가량은 이미 도여자연합청년단을 결성하엿고 나머지도오는여름까지는 전부 결성을 맛칠예정이라고한다 총독부에서는 남자청년단대회와 전후하여기원(紀元)이천육백년의 의의잇는 기념사업의 하나로써 오는가을 전조선여자연합청년단을 결성하는동시에 경성에서 전조선여자청년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남자청년단대회와 대응하여 총후조선여자청년의 의기를 보일터이다

安奉線도複線敷設

京釜、京義複線에呼應、三年後에함께全通計畫으로

鮮滿一如鐵道交通에快速的大變革

조선철도국에 들어온 소식을 들으면 남만주철도회사에서도 소화십오년도부터 삼개년계획사업으로 안동(安東)봉천(奉天)사이의 안봉선철도 이백칠십오키로의 복선을깔기로되엇다한다 이리하여 조선철도국의 경부、경의선의 복선완성과아울러 소화십칠년도에는 함께 개통되게될 예정이다 이미 대련(大連)할빈사이에는 복선이 깔려잇는터이므로 이안봉선복선이 완성됨을 따라 아프로삼년뒤에는 조선과 만주사이의 철도교통은 큰변혁을 일으키게될터이어서 대륙교통이 아주 빨르게될것이다

飯米五十石

密賣하다綻露

경기도김포군금포면(金浦面)공성리 사백십구번지 농업 전현용(全賢用)은 작년시월에부내 해남군삼산면창리(海南郡三山面倉里)출생의 이원길(李元吉)을만나 이지음서울에 쌀기근이 심하니시골서 쌀을사서 비밀히 시내로갓다팔면 이익이만타는말에 귀가떠서 두사람이공모하고 금년정초에경찰의 감시가약간헐해진기회로 초이튼날부터 팔일까지 세차례나 밤느께『트럭』으로 쌀칠십오석을 김포읍으로부터 운반하여다가 부내로 돌아다니며서한섬에 오십원씩(공정가격사십이원오십전)밧고 팔다가 구일종로경찰서경제계에 붙들려방금조선미곡배급조정령위반으로엄중한취조를 밧고잇다 그리고 전기이원길은 이외에 여죄가잇서 사법계에서도 그를취조중이다

ツカダニのネクタイ

內外쌈끄테

양잿물먹은색씨

십일오전두시 부내누하정(樓下町)칠십구번지 서옥분(徐玉粉)은 양잿물을 먹고 자살을 도모한것을 남편이순봉(李順奉)이 발견하여 내수정 망제의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하엿스나 다행히 생명은 구하게되엇다 원인은 그전날밤에남편과 말다툼을하고 세상을 비관한끄테 죽으려던것이라한다

強盜를取調

꺼무는盜犯

변변이 도적질도못하고 걸린사람—경상북도선산(善山)출생으로직업이업는 이태문(李泰文)은 십일오후네시반 부내대현정일백삼십이번지 모자장사 김혜관(金惠寬)의 집에들어가 모자、사쓰등 겨우 구원오십전어치를 훔처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그아페지나고잇던 남견조(南見組)사무원 신태선(申泰善)이붓들려고하자 함부로뿌리치고 때리다가 동리사람들에게 붓들려 서대문경찰서로 끌려왓는데 붓들려는사람을 때린까닭에 강도죄로취조를밧고잇다

各小學入學願書

町會別提出日割決定

경성부내 각공립소학교 입학원서 접수기일은 일월십오일부터 이월말일까지로 결정되엇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와갓거니와 금번도 번잡을 피하기위하여서 지원가정에서 마음대로 제출하는일을 금하여 반드시 정회를 통하여서 원서를 제출하게되엇는데 부학무과에서는 정회가부학무과에제출할 일할(日割)을다음과가치 결정하여 명식으로 부내각정회에 정식으로 통첩을 발송하기로되엇다

入學願書對照日割

(◎은町會別)

▲一月二〇日=旭町一丁目 ◎旭町二丁目 ◎旭町三丁目 ◎本町一丁目 ◎本町二丁目 ◎本町三丁目 ◎本町四丁目 ◎本町五丁目

▲二二日=黃金町一丁目 長谷川町 南大門通二丁目 ◎南大門通三丁目 南大門通四丁目 南米倉町 ◎南大門通五丁目 御成町 蓬萊町一丁目 ◎北米倉町◎

▲二三日=太平通一丁目 ◎太平通二丁目 ◎西小門町 貞洞町 和泉町 ◎明治町一丁目 明治町二丁目 ◎吉野町一丁目 吉野町二丁目◎

▲二四日=古市町◎蓬萊町二丁目 蓬萊町三丁目 中林町◎蓬萊町四丁目◎南山町一丁目 南山町二丁目 南山町三丁目

▲二五日=永樂町一丁目◎永樂町二丁目◎大和町一丁目◎大和町二丁目 大和町三丁目◎櫻井町一丁目◎櫻井町二丁目

▲二六日=東四軒町◎西四軒町◎日ノ出町 壽町 倭城臺町◎本町◎新町◎

▲二七日=南大門通一丁目 茶屋町 武橋町 水標町 三角町◎水下町 長橋町 笠井町◎黃金町二丁目◎黃金町三丁目 若草町

▲二九日=黃金町四丁目◎黃金町五丁目◎黃金町六丁目 黃金町七丁目◎花園町◎

▲三〇日=初音町◎舟橋町◎芳山町◎光熙町一丁目 光熙町二丁目 鍾路四丁目 鍾路五丁目 觀鐵町◎

▲三一日 鍾路六丁目 孝悌町 忠信町◎惠化町 明倫町一丁目 明倫町二丁目 明倫町三丁目 明倫町四丁目◎

▲二月 一日=東崇町 仁義町 蓮建町 蓮池町◎苑南町 城北町◎

▲二日=◎貫鐵町 鍾路二丁目◎寬勳町 仁寺町 堅志町 公平町

▲三日=中學町 鍾路一丁目 瑞麟町 清進町 水松町 光化門通◎

▲五日=玉仁町 通仁町 樓上町 樓下町 昌成町◎孝子町 通義町

▲六日=內需町 新橋町 宮井町◎唐珠町 都染町 彌生町◎社稷町

▲七日=長沙町 觀水町 鍾路三丁目◎通義町 積善町 內資町◎

▲八日=敦義町 濟洞町 授恩町 敦義町◎

▲九日=樂園町 益善町 慶雲町◎

▲一〇日=苑西町 臥龍町 雲泥町 勸農町◎ 西大門町一丁目

西大門町二丁目◎

▲一二日=桂洞町 嘉會町 齋洞町◎

▲一三日=安國町 松峴町 司諫町◎

▲一四日=三清町 八判町 花洞町◎

▲一五日=昭格町 渭洋町 蛤町 積善町

▲一六日=松月町 平洞町 橋南町 竹添町一丁目◎

▲一七日=冷泉町 竹添町二丁目 竹添町三丁目◎

▲一九日=阿峴町第一區町會◎

▲二〇日=阿峴町第二區町會◎阿峴町第三區町會◎

▲二一日=老姑山町 滄川町◎東幕町

▲二二日=新村町 延禧町◎峯元町 大峴町

▲二三日=北阿峴町◎

▲二四日=玉川町 天然町 橋北町

▲二六日=紅把町◎弘濟町◎

▲二七日=杏村町 峴底町◎

▲二八日=付岩町 弘智町 新營町◎

▲二九日=西界町◎

鮮滿氷上對抗後想

歷史기픈鴨江떠나 ①

清凉里에初登場

兩軍의出場멤버決定

氷上朝鮮의劃期的인 鴨綠江鮮滿氷上對抗競技는 十有餘年의歷史를 남긴채 朝鮮과滿洲氷上對抗競技의 開催地를 京城으로옴겨서 清凉里링크에서 來十四日午前十時부터 열리게되엇다 今日의競技 滿洲로 다라드로써 무로九年만인 昭和六年에 朝鮮側이 勝利한以來 滿洲에잇서서는 氷上競技의中心地는 新京、奉天、撫順 滿洲와 國際的으로 스피—드·스케—트의 大衆化를 보는 한편 優秀選手養成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고잇서 男子部는 朝鮮이아직도優勢한 勢力을가지고 잇스나 女子部만은 滿洲가 壓倒的優位에잇다 이번對抗競技種目은 男子스피—드部에 五百米、千五百米、五千米、一萬米 女子스피—드部에 五百米、千米、千五百米、三千米로서 總得點으로 勝敗를 決하기로되엇다 競技는 男子五千米와女子三千米만은 오픈 코—스에서 行하고 全部를

◇男子部

▲五百米=滿洲…內藤 山本 三代 補缺川口 朝鮮…崔龍振 洪鍾萬 金聖鎬 補缺崔日弘

▲三千米=滿洲…安達 松元 木谷 補缺山本 朝鮮…金滿興 崔東謨 朴豐鎔 補缺金昭鎬

▲千五百米=滿洲…內藤 三代 木谷 補缺川口 朝鮮…崔龍振 金聖鎬 李鍾正 補缺金滿興

▲一萬米=滿洲…安達 松元 山本 補缺水谷 朝鮮…崔東謨 金潤鎬 朴豐鎔 補缺洪鍾萬

◇女子部

▲五百米=滿洲…鶴子 江崎 大倉 補缺崔 朝鮮…鶴谷 李仁九 田代 補缺張貞仙

▲千五百米=滿洲…大倉 鶴子 江崎 補缺田代 朝鮮…淺海 田代 金淑在

▲三千米=滿洲…江崎 大倉 鶴子 朝鮮…鶴谷 李仁九 淺海 補缺山本

▲一千米=滿洲…江崎 大倉 鶴子 朝鮮…淺海 鶴谷 金淑在

金昌齒科 電…七一六一

餘錄

옛날、옛날이라 고해도 한삼십년전만해도 용(龍)이 오른단말이잇섯다▲그때 용이오른다면 날이흐리고 바람이불고、금시에 비가올듯이 캄캄해지는날씨이엇다▲용이오른다면 동리가 어수선해지면서 어디냐、어디?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며 검은구름장을 책장이나들처보는듯이 눈이 벌개서 야단법석을하는데▲누구나 용을보는듯이 또본듯이 떠들대기는하면서도그용의머리나 꼬리를보앗다는사람은 업섯다▲그러고용이 어느동리 어느곳에서 올랏다던가 또는어느개굴에서올랏다고 소문이나면 그동리에는 어떤상서로운일이나 잇슬뜻이생각하는것이 상식이엇고 그상서로운일 가운데는 생각지못햇던 놀라운일이나 생길뜻한 송구한생각도업지안햇다▲그런데 용이오르는데 꼭문제되는것은『의심』이란놈이 잇서서 용꼬리에 매달리면 용이 못오른다고햇는데 의심도 어떠케생긴것인지 모른다▲바로 금년이 용의해라고 하니 생각하두 새생각되는것은 옛날에오른다든용이 지금은 어째안오를까하는것이다 결국은용오른다든 소문만이다 올라버리고만 이겟지 생각이면 그만큼 세상은 박귀엇겟다

全朝鮮스키—大會

廿七、八兩日開催

【元山】朝鮮스키—聯盟主催第十八回全日本스키—選手權大會朝鮮豫選兼第十回全朝鮮스키—選手權大會는 來二十七、八兩日間 元山에서 開催케되바 벌서부터스키—어의 마음을 날뛰게하고잇다 그런데 場所는 눈의名所新豐里스키—場을 元山府當局에서 目標로 同스키—場의 諸般施設을 充分히 圖謀하던中 요즈음에 完成을보앗스므로 同스키—大會는 더욱盛況을 이룰것이豫想된다

普專籠球祝勝會

普專籠球俱樂部에서는 三浦網의偉勳을세운 普專籠球團祝勝歡迎會를 十二日午後五時부터金剛園에서열터이라는데 部員은 總動員參席하기를바란다고한다

▲피—규어(團體成績) 一、明大四五 二、慶應三六 三、早大二三 四、關學一七 五、立教一四 六、同志社一二 七、北大六

(個人成績) 一、有阪(明大) 二、小林(明大) 三、高山(慶應) 四、鹽田(立教) 五、伊藤(早大) 六、佐藤(明大) 七、中上川(慶應) 八、最賀(慶應) 九、鷹野(關學) 一〇、山口(早大)

▲氷上하키—決勝

立教 3 (1-0 / 2-1 / 1-1) 2 明大

全國學生氷上終幕

【東京電話同盟】第十五回全國學生氷上競技選手權大會 最終日은 十日午後六時三十分부터 芝浦링크에서 푸리—스케—팅及氷上하키—決勝을 擧行한바 푸리에는明大二年連勝하고 氷上하키—決勝에는 立教가最後五分間에 二點을 너허明大를누루고이또한 二連覇를하엿다 이리하여 明大는 스피—드及 피—규어兩競技에一位를占하여 綜合選手權을四年連續獲得하엿다

日本籠球協會 優秀選手決定

【東京電話同盟】大日本籠球協會에서는 十日 昭和十四年度 優秀選手를 決定發表하엿는데 男子部는 다음과갓다

◇優秀選手=F橫山(早大) C趙得俊(普專) G吳… 安息鎬(普專) 吳東熙(普專) (補缺)瀨口(京大) 萩原(立教)

◇優良選手=F李好善(普專) 瀨田(京大) 池上(文理大) 金鼎鎭(立教) C張利鎭(立教) G金鼎信(延專) 宗像(早大)

全日本中等氷上 氷質關係로延延

【日光湖畔링크에서菰田特派員發】第十四回全日本中等氷上大會第一日은 十一日午前八時부터 日光湖畔링크에서 開催될豫定이더니 이날氷質이上昇하여 氷質이 如意치안하서午前十時에 겨우開會式을 마치엇스나 午前十時에『美研』의컨디숀이不良하여 豫定의五百米스피—드를 開始하지못하엿고 氷質이回復되기를 기다리고잇스며 아이스、하키—競技은 進行하고잇는데 豫前豫想으로는 任東鎬(新京州東中)金海元(松中)君等의 金冠獲得이期待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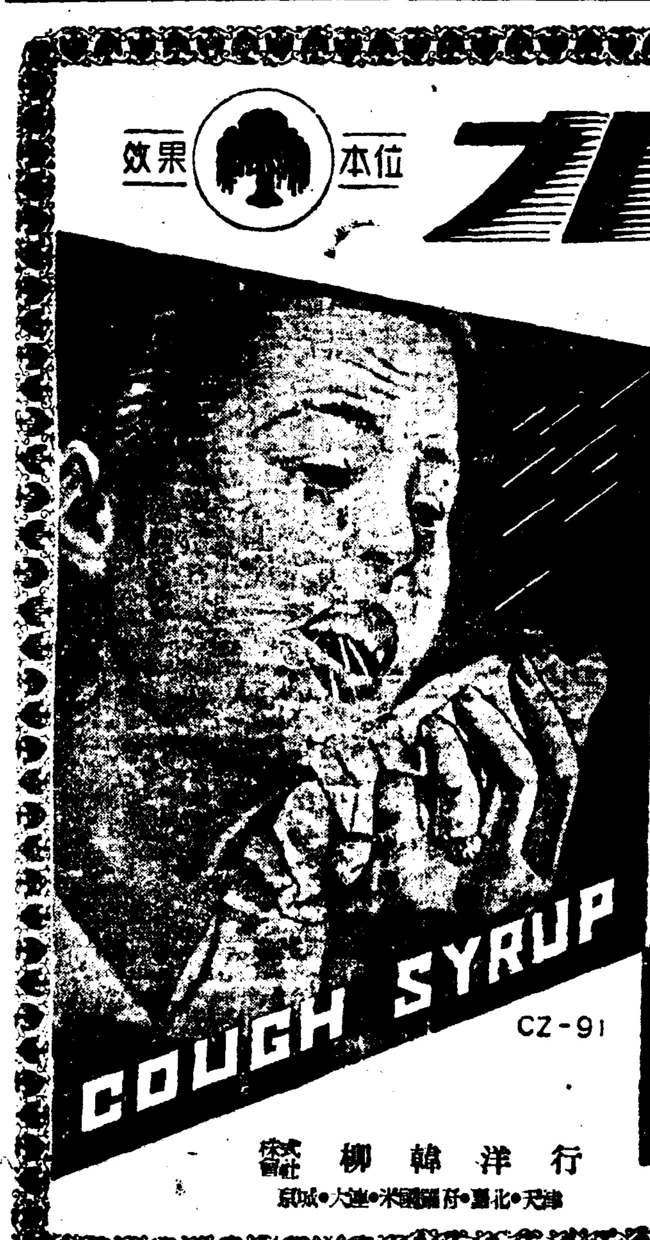
아모리 어려운 證書·願届라도 代書無用으로제손으로쓴다

家庭에꼭 이한卷을 도장하나찍기에 非常한損失을招來하는수가잇다 또簡單한届出을 도제손으로못쓰면代書人에게三十錢五十錢을내게되는時代당 證書나 届書을스스로쓰면不便이란 으니이不便을除去함을目的으로 般新發賣된日常百般의 (代書いらず正しい證文の書き方)는法學士辯護士安部安道先生이가르친冊으로이야말로 一切의證書와届式을收集한것입니다。

賃借 賣買、讓渡、質入、調停 届書、抵當、登記、戶籍、寄留、兵事、營業、出版、納稅事項 民事刑事訴訟、人事訴訟手續等其他一切의證書願届書中請申立及届類와書式의大集錄으로本書에代書人의必要가업시 어려운書式도本書一冊만잇으면容易히쓰게되어大評判四六判特製二百九十六頁書一千部限特賞中送料共金一圓二十五錢입니다 希望者는至急書留로左記에 申込하면代引으로送本함

東京市芝區三田豊岡町三ノ四 電話三田… 振替東京… 日本書院

廣告



效果本位 기침에!

아해、어른할것업시 겨울에第一만흔病은 담과 기침의呼吸器病이다。即時곳치지못하고 오래끌게되면 疲勞衰弱해저서 氣管支炎、肺炎、百日咳、喘息을알케되든지 或은 潛伏結核의活動을誘發하야 肺炎에걸리게된다。

コフシロツプ는、效力이大端히優秀함으로 全國大小病院에서 多年間愛用해온 담、기침藥으로서 다른種類의기침藥과는달러조금이라도劇藥或은 麻醉成分을 含有치안코 藥맛이 또한 美快함으로 몸弱한사람은勿論 藥을실혀하는 어린아해라도安心하고 먹을수잇습니다。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120瓦·(家庭用) 475瓦·1900瓦·3785瓦(病院用)

祛痰鎭咳劑

コフシロツプ

코후시럽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米國羅府·臺北·天津

朝報案內

地方事務員 …

寫眞館急讓 …

洋服 …

垈地建物大處分 …

京城府竹添町二丁目一四六 太陽堂書店

自動車修繕工募集 一、エンヂン廻リ熟練工數名 見習工 右優遇採用ス希望者ハ履歷書送ラレタシ 京城府元町三丁目五三 京城トヨタ自動車販賣株式會社サービス工場

東京銀座 株式會社資生堂

冬季는冷氣로해서살결이거칠기쉬우므로 榮養과被覆力이强한이크림으로지켜주십쇼…

부드러운皮膚를맨드는 資生堂 コールドクリーム

洗顏에 살결이거친데 化粧下에 五五전 (大)一圓十전

中風 高血壓 腦病

原因부터고치는 血液大掃除療法

리키시ン「イマグ」입니다。

中風은낫는다

本社京城賣販所 五行公司 電本②一五九七

梅毒 淋疾 早漏防止 無代進呈

強精強性藥

文壇新年의 토픽展望

新人論·"로망"論

作家가본創作界 (下)

朴泰遠·安懷南 對談會

朴 假令한作家가 自己대로의 어떤世界를 지켜왓는데 그世界에서떠나 딴世界로 겻스한다는것은 決코容易한일이아니에요 그런데 評家가 한作家의 作品世界를 잘理解햇다면 作品하나를가지고 곳 딴世界로 移徙햇다고 速斷해바리는것은 아모래도 輕忽하다고보지안흘수업서요 더군다나 題材가 좀달러젓다는點만으로 그러한評을한다는것은 評家로서 너무 輕忽함이아니겟서요?

安 어째든 나타난作品에 그대로 파달든 現實—距離를가젓다면 그대로보는게지 그게 그러케 問題될까요? 그러라면 그나음에 그前과 달르지안는 그作家의世界를 表現한作品을쓰면 고만이지요.

★新人은 不可畏인가

李 이건좀딴애기인데 中堅과新人에對한 얘기가 만히되잔엇서요? 設或한作家가 그前에作品을發表햇다가 中斷한후 다시作品을쓰게되는境遇 딴사람들이 便宜上 新人이라거나中堅이라고 區分하는것은 조치만 作家自身이 新人待接을 나더나고 不可畏니不可恐이니하는것은 쓸데업는데 精力을浪費하는것밧게 안될것가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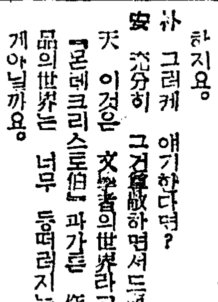
安 林和氏가 新人不可畏니하는 이라거나 崔載瑞氏가 旣成不可恐이라고한것은 어떤 主張이 잇서서 한것이지 쓸데업는偏派心에서만 나왓다고 볼수는업겟지요. 그러치만 新人이라고 한대서 不名譽될것은 업슬테지요 이러케 新人이니 中堅이니하는것은 二三年來文壇이 어느程度까지 地盤이 재피면서 必要上 이런 區分이 생긴것이지요 이點으로서로 諒解할일일을 알어요.

朴 結局 作品行動이업는동안에는 作家는文壇的으로 나히를먹지안는셈이되겟네(웃음) 그런애기를할만큼 文壇이 實力을 가진셈이지요

安 朴魯甲氏의 小說을보면 글이라든지 用語에 너무나 專心하는것가태요 누구나 이런데注意하기는하지만 너무지내치면 作品에 潑氣가 缺乏되지안흘까 죽은소리란것도 약맛게잇고 늘놀마슨 그런餘裕도 잇서야지 그러치안흐면 김이빠진듯 룸시 嚴嚴해질것가태요

安 그런嚴嚴하다는 問題가아니라 그러케되면 必然的으로 기계的冷却하는게 아닐까요 이李箕永氏가 月評을쓴데다가 朴魯甲氏에게는 강조되 망꺼쓴것과 가른느김이 잇다는말을햇는데 이런「포―즈」를 가는것은 어떨가생각이되요―

★레알리즘對 浪漫主義



朴泰遠

朴 그런데 現在는 浪漫主義의 魅力을 느끼지안습니까?

安 朴兄 그런걸 다생각하셔요 나로서는 金南天氏와가치「레알리즘」에 徹底하고서퍼요.

朴 나는 興味를느낄수잇는範圍에서 이것저것해보고시퍼요 例하면「쥬―마」의小說이라던지「이·폴·뷰고」의「레·미제라블」가튼그런世界가 熱心나잔어요?

安 그건 厖大한大衆의世界지요 그런의作品은 通俗小說이라고보겟지요.

朴 그러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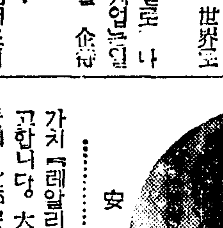
安 말하자면 偉大한 通俗小說이겟시요 그런데 特히 「몬테크리스토伯」과가튼世界 그속에는 無線電信技師가 團扇에 …해서 專門的 意見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런 地境이가면 大衆의 興味를 끄을수도 잇고 나로서도 그런 世界로 뛰여들고시퍼요.

安 朴兄이 浪漫主義의길로 나가신다면 賛成할수밧게업는일이고 그런偉大한作品을 企圖하지요.

朴 그러케 애기한다면?

安 充分히 그것을成就하면서드래도 이것은 文學者의世界라고 「몬테크리스토伯」과가튼 作品의世界는 너무 동떠러지는게아닐까요.

朴 내가곳그러케나간다는것이아니라 기로나가는것도조치만 이왕서쪽으로 가도相關업슬것가태요 이달은 다른게아니라 小說家로서도 缺乏된點은 「이대―」다그걸 指摘하는데 그대로 것은 小說家로서의 想像力을缺하고 廣大無邊한空想 이러것을 어느程度까지는 具備하고십다는것입니다



安懷南

安 아프로 나만은 金南天氏와 浪漫主義가아닌「레알리즘」의 世界로…… 가지「레알리즘」을 終顏하려고합니다 大體로 나는 作家들이 批評家를 모른다고봐요 小說家끼리도 남의小說을 잘읽지안코해서 作家는 自己世界밧게는 모르라요 그래서 향용 自身의 적은不滿을 가지고 批評家들에게 不平을말하고

★스케일은 더크게— 月評은 意見으로

安 그런걸 試驗해보겟는 作家이라 말들이죠

朴 언제할지 안할지는 斷定해서 말할수는업스나 그런대로 마음이 솔리는것은 事實이애요 …그런데 懷南短篇集에는 엇재 心境小說을 빼습니까 아프로는 이때까지 손대보지안흔데 興味를 느끼여 그런世界를새로이 作品化하라는것입니까?

★大期待되는 作家는?

朴 그런데 나는 이럿게생각이잇서요 月評은 匿名評論師로 하는게 本名으로 하는것보다 作家와의 關係도 되고 밋지안흘까 …

朴 그러면 懷南은今後에 新人中에서 期待되는 作家는 누구일까요

安 만터요 玄德、崔明翊、金永壽……

朴 金史良、鄭飛石두분은?

安 金史良氏는 처음에는 눈에 뜨엿는데 至今 李泰俊氏自身이 對해서도 말성이잇는데 그보다 鄭飛石氏는 너무通俗的으로 흘러가지안켓서요?

朴 蔡萬植、金南天 두분의경우 어쨋든 내생각으로는 大體的으로 努力할必要가잇겟서요

朴 嚴相涉氏가튼 長篇小說의本格的인길을 正面으로 걸어나가는 이들은 …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盆梅

押 灰韻部

期限 一月末日 (漢詩選室)

世界의知性에 듯는다

"最後의淸敎徒"는말한다

(上) 緊急한哲學의再建

八十一歲맛는 米國最大의碩學 쫀·듀이敎授

『쫀·듀이』……그는 누가보든지 오늘의米國이 가지고잇는 最大의最高의知性이다. 그는새해로써 當年八十一歲의老齡이다. 그러면서도昨年에는『文化와自由』라는 一篇을써서 歐洲의 暴民에 反抗하는元氣의 所有者다. 그는 거진 半世紀에가까운 最近米國思想史를 몸으로써 體現했다. 『윌리엄·제임즈』『퍼어스』의뒤를 이어 그는한『산프래그마티즘』이다. 米國에는近年에歐洲에서 흘러들어간 世界的哲學者도 만치만 特히 『쫀·듀이』가우리의 興味를 끄는것은 氏야말로 新大陸의『퓨리탄』精神의 보다純粹한 後裔로서『산타야나』가말한『最後의 淸敎徒의한사람』이다. 最近에나온『듀이의·매가진』에 미친同誌記者의『쫀·듀이』會見記가실렷기에 여기이것을 紹介하여 해가바뀔수록 더욱混亂만해가는 歐洲의現狀에대한 米國最大의 知性의 發言을 듯기로한다.

내(同誌記者)가 前日그의집을 訪問햇을적에 그는몸소나와서 그의事務室을 열어주엇다. 나는 여러해동안 그를만나지못햇다. 그러나 그는 얼마變하지안엇다. 누른털이섞긴것과 하히머리털도 마찬가지고 사람조흔 微笑라든지 얼부러꾸미지안는 態度라든지 前日이나 마찬가지엿다 꽤제까근옷 수염은 눈썹과함께 젊으대로잇다. 이마의주름살은 十年前에 내가 처음만낫슬때보다 더 늘지는안엇다.

最近의쫀·듀이敎授

내가 그더게 哲學의 定義를 물은것은 그가커―다란 安樂椅子에 안즈면서엿다.

그의몸가짐은 언제고 좀머뭇거린다. 내質問을 듯자더욱그랫다. 그는여방『에―』또는『에헴』하면서 椅子에서 몸을비끈다. 잠시동안그는 깜작아한다. 다음에입을뗀다.

『내가五十年동안이나 가르킨題目에 대한 定義를 나리기 어렵다니 우습군. 나는 哲學이란 산題目이어서 늘 生活과 步調를마추어가고 따라서 끈임업시 變해가는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잠간말을멈추고 여윈손으로 네모지럼을 어르만진다. 좀날카로운 기침을 한마디하고 그러고는 그 말의 무게를 헤아리는것처럼 천천히 말을게속한다.

『哲學이란 이時代에 어느 잇는 最上의知識—한時代의가장進步된 知識우에서하는 文化的遺産의 批判입니다.

哲學은 하거크란서서 여러가지事實을 假定합니다. 그래서 知識이 그것들을 밝힌다음에오는問題는 이것입니다『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할까? 그것들은 어디로가나?』

그는게속한다『사람은 무엇을해야할까 어떠케 行動할까하는問題는 哲學의領域이아닙니다 哲學은 知慧의領域입니다 이것은認識論과 價値論을 綜合해서 그러케해서 知識와 知識을 連結합니다』

『哲學은 이混亂한 世界에서 어떠케 도움이 되겟습니까?』하고 나는물엇다.

그는 꺼겁거스면서대답한다.

『나는 哲學의 役割을 고첫다는말은 듯고일이 업습니다 한데 오늘의世界는 役割을 알는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世界는 지금混亂카오스속에 잇는때문입니다. 우리는 物質的變化와 그리變化의結果는 우리들의 觀念보다 압서 달아낫습니다.

우리는『에네르기』를 應用하는 시서의 變化를 목니다 아직은 그것에 맞지안는 世界에 나타난 모―든『에네르기』들의……

이러한變化의 結果는 너무 빨리서 우리들이 가지고잇는 根本的인 觀念들과 맞지안습니다. 現在의 여러國民사이의 緊張이라는것도 이러한 變化의結果의 하나입니다.

오늘에와서는 哲學의 任務는 지금까지 사람이 가지고살아온 낡은信念들과 觀念들을 改訂하고 再建하는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經濟的 社會的 物的인 새로운 條件들을 考慮하도록해서 우리에게 새로方向을 가르치도록할 일입니다. (계속)

(K記者譯)

讀書餘聞……(2)

焚書

金午星

나의藏書 六百冊—이것이그리만흔것은아니나, 그러나 나로서는 十五年間, 文字그대로 刻苦勉勵해서 사서모흔것이다. 나면서 孤兒가된나는 가장찬란햇서야할 少年時節을 거출고, 어두운속에서 보내엿스니 成할 階梯잇슬 敎育을 방을수가업셧다. 나히가二十이넘어서 그래도 工夫해야한다고 周圍의 切迫한事情을 떨어버리고, 東京行을斷行한것은 當時의 나로서는 그야말로 英斷이엇다. 그러나 大東京의 거리에 내던저진 나는 뷔인 두주머니밧게 아무것도 업섯다.

게다가 先天的으로勝負의爭鬪를 가진지라 남처럼 新聞配達이나 「쿠즈하라이」를 해서 學費를 어들수도업섯다.

할수업서 어머니를 모서다가 一年間은 밥장수를 햇고 다음一年間은 동무들에게 비렁뱅이조술햇고 第三年재는 그래도 運이티여 어느機關에서 每朔四十圓의學費를 엇게되엿다. 이러케 困窮한 學窓生活三年間에 그래도 나는 三百冊이라는 藏書를 사드렷다.

東京時代에 모아노흔 三百冊! 이것은나의 피와 살을 깍가모은것이나 다름이 업는것이다. 點心을안먹고 그리고도 저녁을굼고 電車를안라고 그리고 一切의娛樂을 모르고 校服과 구두를 새로 지을일이 업서 떠러진校服에 해여진 신작을 끌면서 그리고 一年에 세번박게 理髮을못하고 그리해서 모은것이 三年間에 三百冊이 된것이다. 아직도 한가지 記憶만은 남어잇다. 내가 二學年되든 무더운 七月어느날이엿든듯하다. 나는 午後한時부터 밤아홉時까지 내가 듯고시픈 講義는 꿀라가면서 늣는것이習慣이여서 그날도正午쯤집을 나섯다. 나는아츰만은 自炊를하고 點心과저녁은 時間關係로 學校食堂에서 사먹기로햇다. 東觸서神田까지가 約 鮮里數로 約十五里나 되는것을 每日거러단녓다. 勿論그날도 電車를 탈理가업섯다. 포켓트에는 며칠동안의 食費인 一圓五十錢이드러잇섯다. 學校에서 한時부터 세時까지 계속되는 哲學史의 講義를 듯고 食堂으로 向하든 나의발길은 어찌하여 東京에서 제일큰 古本屋店으로 먼저드리서게되엿다. 여기서 내첫눈에 뜨이는 것은 벌서 오래전부터 읽고십던「헤―겔」의「歷史哲學緖論」(和譯)이엿다. 그도定價一圓八十錢이 一圓五十錢으로되는 그만前後를 곰곰생각도 업시그것을 사버리고 말엇다. 그때문에 點心도 저녁도 굶엇슬것은 두말할것도 업다. 나는 冊을 사다는 기쁨으로서 참엇다. 그때 多幸이 李라는 學友가 지나다가 나를 發見하고『밥아직안먹엇니』 그의 厚意로서 그에게 떠메이듯하여 도라온것이다.

내가 東京서 京城으로 나온것은 昭和七年이엇다. 本來 훌륭한 看板을 못가젓스니 就職을 하려고해도 안된것이지만 그러한就職은 元來 나의생각에는 업섯다. 그래서 半年間을 『룸펜』으로 지내다가 어떨것이 貧窮한 某雜誌에 엿당기기에 結婚을하고보니 지금처럼 物價가 비싼것은 아니로되 家庭生活도 維持하기힘든 形便이엇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책을사드리는 習慣을 버릴수는 업섯던것이다.

그 準備가운데서도 안해와 악다구니를 뜨드면서도 每朔三四冊은 사드렷다. 나의 이런 버릇에 家族不和는 끄치지 안햇다.

結婚한지 一個年만에 첫애를 낫다. 스물이될랄지 나흔것도 안해에게는 貴하지안흔 理가 업섯슬것이다. 그러나그놈이 나흔지 半年이 못되어 그만 죽어버렷다. 안해는 그것이 밤낫 冊만 사노라고 어린것을 病院에 한번 변변히 가보지못해 죽인것이라고 야료다. 그뒤에도 안해는 一年에 몇번식 책을 동댕이를 치며 이되도록 자식생각이 나면가 또무슨내게 不滿의 잇슬때에는 내藏書를 依例히 怨恨한다. 冊을中心으로하고 버려진 안해의새는 꾸못내不和할길이업시되엇다. 나는 反動으로生活이야 어찌되엇든 읽고시픈冊은 모조리 사기시작하엿다. 이리하여 及其也는 거기에다드려 서 가지 惑情이 加添되어가지고서 옷갈라지게까지된것이다.

이러케해서 지금까지 모하노흔 책이 約六百冊에 達한 것이다. 내손에 돌어와서도 무척 苦生사리를 해왓다. 東京時代에 每當하다시피하는移舍때문에 자리가잡히지안어서 떠메워다녓슴은 勿論이고 서울에 온뒤에도 三年間은 貰房사리라 六、七次를 떠메고 다녓스며 그뒤 간신히 집한채를 가진뒤에도 四、五次를 옴기엿던것이다. 그동안 紙函이꿰여지고 表紙이 일그러지고하여 그보다 헌책들이되엇다.

新刊紹介

▲萬一五百工課例話集 發行所 京城府阿峴町四一六의八 新文社 振替京城三一四三六番 定價六十錢 送料三錢

▲新世紀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一 新世紀社 振替京城一九三四四番 定價四十錢 送料二錢

▲批判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四六 批判社 振替京城二七八七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神秘의비밀 發行所 高陽郡恩平面新倉里(天祭洞)三角山房 定價三十錢

▲新精神의體驗的道理 金在簡著 發行所 高陽郡恩平面佛光里(天祭洞)三角山房 定價四十錢

▲朝鮮鑛業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古市町一四 朝鮮鑛業新報社 振替京城二一七八八番 定價八十錢 送料二錢

▲黃昏 韓雪野著(朝鮮作家名作全集三卷) 發行所 京城府…路二丁目九八 永昌書館

▲安懷南短篇集 安懷南著(朝鮮文庫) 發行所 京城府…路二丁目 學藝社 振替京城一六一六四番 定價五十錢

▲素月詩抄 金億編(博文文庫) 發行所 京城府…路二丁目八六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二三番 定價三十錢

▲十字架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新堂町三四七의一八四 十字架社 振替京城一七五〇九番 定價十錢

第一回 文人書畵展覽會

自一月十五日 至一月廿一日

主催 文人展同人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於朝鮮日報社大講堂

食の一月！胃腸の一月！

治療藥アイフ備への一月！

治療藥アイフ에는病源對症二重으로活動하는作用이잇고王藥이胃腸內壁의病變部에沈着해서炎症을고치고粘膜을트트케하고弛緩을收縮하고分泌과蠕動機能의異常을整調함과함께腸管內의有毒物質을吸着해서體外로排出하는等廣汎한病源治療를營爲하고아울러가슴쓰림、트림、건구역、胃痛、腹痛、泄瀉、便秘、嘔吐、消化不良、食慾不振等의諸症狀까지도消退해서機能의恢復을速하게하므로正月에만흔過飮過食으로오는胃腸病에는마침인治療藥으로서賞用됩니다

JANUARY 1 MONDAY 月曜 大 一月一日 四方拜 旧十一月廿二日 屠蘇酒

JANUARY 2 TUESDAY 火曜 旧十一月廿三日 雜煮

JANUARY 3 WEDNESDAY 水曜 元始祭 旧十一月廿四日 雜煮

JANUARY 7 SUNDAY 日曜 旧十一月廿八日 七種粥

JANUARY 11 THURSDAY 旧十二月三日 鏡開

JANUARY 15 MONDAY 旧十二月七日 小豆粥

JANUARY 20 SATURDAY 大 旧十二月十二日 二十日團子

發賣本舖 順和商會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電話大阪東三四五番

支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大邱南山通九八番地

全國到る處有名藥店にあり

財産및投資對象으로서의土地 ⑤

[illegible]

卽 가른土地에 [illegible] 하겟스나 할때에 [illegible] 하는것이 더 [illegible] 여 企業家가 그곳에 進出하는것은 工業立地上 그곳이 良好한位置이기때문일것이고 그러한位置에서는 農業經營에比하여 超過利潤이 發生할것은 明白하다. 이超過利潤을 [illegible] 하는利潤은 어떠한工業에잇서서도 存在할것이니 그러므로 工業에잇서서 반드시 土地位置에 基因하는 差額地代가 發生된다 그런데 가른工業에잇서서도 그立地上 또한 位置의 差異가 생기므로 어떤工業部門은 他의工業部門에 比하여 超過利潤이 생기게되며 土地 [illegible]

[illegible]

"小運送店集約合同 計算機關單一化"

鐵道局長·方針을內示

昨年十一月九日에 總督府制令으로써 公布된 朝鮮小運送業令은 드디어 오는十五日부터實施하기로되엿는데 그實施를압두고 再昨日東京으로부터 歸任한 山田鐵道局長은 昨十日 運送業界의代表者를 鐵道局으로 招請하여 다음과가튼談話를하고 業者의善處를 要望하엿다 그이야기가운데서 特히全朝鮮各驛에 亂立한小運送店의 集散合同과 計算機關의 單一化를 力說한것은 注目할바이다

小運送業의 國民經濟上 또는軍事上 重大한使命을 가진것은 이제새삼스러히 喋喋할必要가업는바이다 當局으로서는十有餘年間 이것을改善하기에 애써왓스나 現下의모든情勢를 從來와가치 다만經濟的手段만으로써 나아가기를不許한다 內地及滿洲에서도 年前에小運送業이 實施되어서 小運送業者에對하여 國家가適切한指導監督과 統制를 斷行하여 業界는漸次改善되어가고잇다 때마침 朝鮮에서도 또한이에適合한 統制强化를期하고 新秩序를 樹立할必要에 切迫하여잇스므로써 지난번에 小運送業令이公布되어서 드디어十五日부터 實施하기로된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運用實行하는것은 畢竟國策에 相副하는것이므로써 業者도 此際에 잘考慮하여서 만흔 協力을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을具體的으로 運用하는데 當해서는 여러가지의見解가 잇슬것이나 먼저첫째로는計算機關의 單一化를 圖謀하여서 全朝鮮業界의 中心的 存在를만들게하고 그機關을通해서 業者의指導助長의 徹底를 期하지안흐면안된다 또 同時에 各驛에서 業者亂立의現象으로서는 業令發布의 根本趣旨인 小運送能力의 向上增進을 [illegible] 優良한 業務員의 養成保持와 運搬具의 充實은 勿論 小運送料金의適正은 到底히바랄수업스므로서 各驛마다 極力集約合同을 盛遂하여써 所期의目的을 達하려한다

妻丸計事務談

昨日鐵道局長이 高橋丸計社長과 郭同盟會長을 불러서 鐵道局의方針을 內示하바잇섯는데 非合同側으로서는 어디까지 丸計를存續시키 [illegible]

丸計는解散必至

非合同側對策講究

別項과가치 小運送業令이 十五日부터 實施됨에 따러 鐵道局長으로부터 小運送店集約合同과 計算機關單一化의 方針을業者에게 言明하엿스므로 運送業界는 非常한 衝動을받고잇는데 就中 非合同業界는 鐵道局의이 根本方針 明示에依하여 今後善後措置에 奔忙코잇다 非合同業者의計算機關인丸計鮮滿運輸計算會社에서 十二日午前十一時 金千代館에서 緊急重役會, 同日午後三時부터는 朝鮮運輸同盟會中央代議員會를열고 對策을講究키로되엿는데 結局에잇서 丸計는消滅되고 朝運計算部에 合同케될것인데 그條件, 時期等이 남어잇는問題로보인다

京城組銀預貸 新記錄示現

貸出은六億圓肉迫

京城手形交換所調査에依한 昨年末現在 京城組合銀行預金貸出高는 預金三億八千三百八十三萬三千圓 貸出五億九千百九十一萬五千圓으로서 이것을 同月十五日現在에比하면 預金에잇서서 三千八百五十四萬五千圓 貸出에잇서서 百四十九萬二千圓의 各其新記錄膨脹이엇다 其內容을보면 如左하다 (單 千圓 印은減)

◇預金

	十二月末	同十五日上比
定期	一三六·三五三	二八·九六〇
當座	八六·二四三	三·六六〇
特當	[illegible]	[illegible]
通知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貸出

	十二月末	同十五日上比
證書	[illegible]	[illegible]
手形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割手	[illegible]	[illegible]
荷爲替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또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預金은 一億四千六百十七萬八千圓 貸出은 二億五千四百八十八萬二千圓의 各其大膨脹이엇다

組銀, 證券所持 六億二千萬圓

京城組合銀行에 잇서서의 客年末現在 所持高는 有價證券六億二千三百七十萬五千圓 預金高一千六百四十六萬九千圓 金銀在高一千四百三十九萬六千圓으로서 이것을 同月十五日現在에 比하면 有價證券에잇서서 一千九百五十二萬三千圓 預金高에 잇서서 六百九十萬五千圓 金銀在高에잇서서 百十六萬五千圓의 各其增加이엇다

京城手形交換 十二月中增加

京城手形交換所에잇서서의 客年十二月一日부터 同三十一日까지에 手形交換高는 枚數十九萬九千九百七枚로서 其金額은 二億九千五百四十七萬三千八百六十三圓十九錢인데 이것을 前月에比하면 枚數에잇서서 三萬八千百九十九枚 金額에잇서서 七千三百六十九萬四千四百三十六圓五十七錢의 各其增加이엇다

京城不渡手形

客年十二月中의 京城手形交換所不渡手形은 人員卅八名 枚數四十九枚 金額五萬三千四百五十圓十二錢인데 其內容은 如左하다

金融統制를强化

自治的貸出限度引下

內地의 金融統制强化에 倣하여 總督府에서는 自治的資金調整則을 고치어 貸出限度를 如左히 引下하고 今年一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財務局에서 關係方面에 그뜻을通牒하엿다

	改良制限高	改正前
甲가	五十萬圓	二百萬圓
甲나	二十萬圓	七十萬圓
乙가	十萬圓	三十萬圓
其他	三萬圓	五萬圓

事業資金調整標準

朝鮮에잇서서 事業資金 調整標準은 다음과가치 區分되어잇다 卽,

1、軍需와의關係
2、國際收支改善과의 關係
3、現在의生產能力 其他事情等을 考慮하여 各種事業을

甲、軍需에 直接關係잇는產業及 이와密接한關係에잇는產業으로서 現在事業設備는不足되고 又는時局의關係上需要가激增되어 其結果事業設備의不足이 豫想되는것으로 因하여 事業設備의新設擴張又는 改良이 必要한것

乙、甲及丙에 屬하지안는 產業又는事業으로서 境遇에 依하여 事業設備의新設、擴張又는 改良을할必要가잇는것

丙、生產過剩의產業 奢侈品其他當面國家全般의 見地에서 보아 그다지必要치안흔物品에關한產業은 勿論 此際에 自制할것이나 不得已한 事業으로서 우선事業設備의新設、擴張又는 改良을하는것이 適當치아니하다고 認定하는것의 三種으로 大別하고 다시 各種別中에잇서서 各事業의性質에應하여 甲을가、나、다의 三段階 乙을 가、나의 二段階로 區別함

朝信信託財産

朝鮮信託本店에잇서서의 十二月末現在의 信託財產은 九千七百五十五萬八千六百九十一圓으로서 其內容은 如左하다

金錢信託	[illegible]
有價證券信託	[illegible]
不動產信託	[illegible]
其他	[illegible]

마니라麻製品 十二月分配定

殖產局에서는 十一月, 十二月分마니라 麻製品을 如左히配定通知하엿는데 配定總量은 前月보다 麻袋百十六俵의 減少이엇다 配定內容은如左하다(單位俵)
▲漁業用 一、三六二 ▲船舶用 一〇一 ▲鐵道用 五六 ▲林業 [illegible]

用 一四 ▲土木用 四 ▲鑛業 三七 ▲商驛 五五 ▲船具商 六四 ▲計(內地製七五五)朝鮮產九四八 一、七〇三

鍾實이朝鮮內 鑛山經營進出

鐘紡系鐘實에서는 朝鮮內의鑛業經營에 積極的進出을 計劃키로되어 江原道洪川의三和鑛山(金銀)買收를 비롯하여 積極的으로 進出키로 되엇다한다

經濟對處懇談會

京城商議에서는 來十八、九日頃 公會堂에서 府內各組合代表者의 參集을求하여 經濟對處懇談會를開催하고 政府의經濟統制에對하여 協議키로되엇다

二億以上膨脹

【京城商議調查】昭和十四年十二月末現在의 朝鮮內會社狀況은 社數五千六百四社 公稱資本十九億四千十八萬二千圓 拂込資本十三億二千七百五十萬圓으로 前年同期보다 三百八社 公稱資本二億二千八百十二萬一千圓 拂込資本 二億四千七百三十九萬三千圓의 各增加로서 十四年中의朝鮮經濟力膨脹을 端的으로 反映하엿는바 이제 十四年十二月末現在와 十二月中의 會社移動을 示하면 如左하다

十二月末現在(單位千圓)

	社數	公稱	拂込
株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合資	一	[illegible]	[illegible]
合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十二月中移動 (單位圓)

新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增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拂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減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解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朝鮮會社現況 五千六百四社

公稱資本十九億四千萬圓 拂込資本十三億二千萬圓

無水酒精近間認可

東拓에서는 無水酒精의 積極的增產을圖하고저 濟州島에工場을 新設하기로하고 目下商工當局에 依하여 認可申請中인바 近間認可될豫定이다

朝鮮의貿易機構整備

貿易會社案으로研究

朝鮮貿易協會에서는 十日午前十時부터 貿易研究會를열고 現情勢에 卽應한 朝鮮貿易機構의 整備에 關하여 全面的檢討를한바 統制輸出組合의 設立案과 朝鮮中央貿易振興會社案의 二個가 中心이되어 愼重協議한結果 各地貿易機關을 統合한會社案이 現下의 情勢에 가장合致한것으로서 原則的一致를 보앗스므로 同協會에서는 總督府以下關係當局과 協議한後 그具體化에 邁進하기로되엇다

▼……物價는 事變前보다 總平均指數가 卸賣五割、小賣四割八分의 騰貴、指數에나타나지 안흔 闇取引等의 實際의 騰貴率은 미루어알것.

▼……全朝鮮會社는 昨年中 大膨脹、拂込資本二億四千萬圓의 增加는 朝鮮經濟力膨脹에 因由한것으로 今年도 一層拍車될것.

▼……이런膨脹線에 解散減資等의 業이 만헛던것도 [illegible]

▼……朝鮮서도 金融統制强化로 貸出限度縮少、非時局產業의 整理는 去益加速하고 日貨主義時代.

▼……小運送集約合同、計算機關 單一化의 方針을 鐵道局長이 明示.

▼……차움만코 말썽만튼 丸計는 업서지게되엇다 朝運計算部와 丸計의 合同이나? 朝運에 丸計가 吸收되느냐가 問題.

總平均五割騰貴

事變前과比較한舊臘物價指數

九·一八適用外品連騰

(京城商工會議所調查) 事變勃發以來 滿二個年半에 當하는 昭和十四年十二月의 卸賣小賣物價를 보면 如左하다 (昭和八年平均=一〇〇)

卸賣物價

	十二月指數	事變前昭和十二年六月比	十三年十二月比	十四年十一月比
食料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調味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飲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衣料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屬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建築材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燃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雜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賣物價

	十二月指數	事變前昭和十二年六月比	十三年十二月比	十四年十一月比
食料品(第一類 穀類、澱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第二類 蔬菜、果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第三類 肉類、鷄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第四類 海產物罐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第五類 調味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衣料品及身廻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燃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雜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于先卸賣物價를보면 事變前에比하여 騰貴된것은 總平均은五割四分이고 雜品(土石工業製品)이 六割六分、衣料品이 六割五分、穀類가 五割八分 [illegible] 金屬類의 二割三分으로 最低率을 示하엿다 小賣物價는 總平均에잇서 四割八分이 騰貴되어 食料品第五號(海產物罐詰)八割五分、衣料品裝身品七割五分、食料品第二類(蔬菜果物)五割五分이 最高를占하고 食料品의第三類(肉類、鷄卵)一割六分이 最下率을示하엿다 九·一八停止令以後의 動向은 一般으로 停止令 適用外의 品目(例컨대 蔬菜果物等의 生鮮食料品, 生絲等)이 逐月騰貴를 繼續하여 總平均指數는 連月騰貴되어 十二月은 前月에比하여 卸賣가 一、五四의 騰貴를 보이고잇다 卸賣와 小賣의 騰貴率을 보면 小賣의그것이 卸賣의것보다 低하다 이것은 朝鮮內에서 後購하여잇다 이것은 公定價格이 決定되어잇는것은 小賣價格이 最高販賣價格에 釘着되어잇는것이 自然히 小賣는 大多數를 占한것도 一因으로서 卸賣, 小賣의 西面이 是正을要할局面이다

株式 利喰物로 低弛

今日의市勢 十一日

前場不動

今朝는 東新五百四十九圓九 鐘新一高已百二十二圓 [illegible] 於行되어 東新은 [illegible] 全部不動狀으로 [illegible] 局東新百五十四圓丁 鐘新百二十二圓五에 大引

後場低弛

後場은 東新不一四五圓 [illegible] 百五十一圓丁 鐘新四圓이 百二十二圓九에 寄付後 小弛모양이엇다

東新關門往來

政局의 動向이 確然치못한것이 잇슴으로 東新은 依然百五十圓關門을 往來하고 汪北銘政權은 好感로 買進되는 人氣는完全히 一服된狀態인데 政局에對하여는 所謂一新이 잇슬모양으로 모두 政變不可避의 豫期하고 잇는듯하나 今般政變은 도

株……政局一新은 不可避 更始一新이 形勢이라고 ▲新黨엔 政局一新▲左이되니 今般엔 政局이 不明朗하여서는 安心買할수업스니 此際明買을持하라? ▲「인플레」時代에 暴落은업다는 氣分이 强하나 이러한人氣의滿이 나올지도모르지 ▲그러나 政局安定만보면 一旦再次買進할順序가아닐까?

米 延 不變 閑散尤甚

前場不成

今朝는 賣買가업시 모두 不成에그치엇다

後場不變

後場도亦是 米는 全然不成이고 正租一區二月限十二圓五十九錢一本을 付하엿을뿐이다

東京國債

▲甲號二分 一〇五、九〇 ▲一回四分 一〇三、五〇 ▲二回四分 一〇三、四五 ▲佛貨四分 一九九、五〇

◇內地株式

京電新	[illegible]	西電	[illegible]
南電	[illegible]	中央絹	[illegible]
國產自	[illegible]	製鍊	[illegible]
無煙炭	[illegible]	小林新	[illegible]
全鑛	[illegible]	三菱商	[illegible]
마네新	[illegible]	朝紡新	[illegible]
朝石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新	[illegible]	弘中新	[illegible]
鐘實	[illegible]	帝人新	[illegible]
日窒	[illegible]	日曹新	[illegible]
九曹新	[illegible]	日石	[illegible]
日鑛新	[illegible]	三菱新	[illegible]
日曹鑛	[illegible]	帝石新	[illegible]
郵船	[illegible]	同新	[illegible]
商船	[illegible]	同新	[illegible]
航空新	[illegible]	東工新	[illegible]
池貝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日立新	[illegible]	小倉新	[illegible]
神戶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鋼管新	[illegible]	川造	[illegible]
日鐵新	[illegible]	니켈新	[illegible]
淺野二新	[illegible]	水產新	[illegible]
醫藥新	[illegible]		

◇滿支株式

滿鐵	[illegible]	東邦電	[illegible]
東亞煙新	[illegible]	滿州電	[illegible]
大同酒	[illegible]	日滿亞新	[illegible]

海外經濟 十日

[illegible]

食糧의配給機構

全朝鮮的으로整備

總督府의 食糧統制方針에 順應하여 各道에서는 各其食糧統制를 强化하기로하고 現在平北을 남긴十二道가 모두新配給機構의 確立을 보게되엇는데 平北에서도 總督府의 希望에依하여 現在의 協會를 主體로하는 配給統制를 改組하여 現下의 食糧政策에 合致하는 新機構를 設置하기로 되엇스므로 各道에잇서서의 食糧配給統制機構는 中央에잇서서의 雜穀移入組合의 設立及 同會社에依하여 代行과 함께 겨우確立을보게되엇다 이제 各道에잇서서의 新配給機構를보면 大體如左하다

一、米穀

가、道에 配給組合을設置하여 米穀의買付, 賣入을하고 道內의 米穀의需給調整을 圖하는同時에 道知事의命令에依하여 [illegible]

나、各郡、府에 郡府組合을設置하여 [illegible] 買入을함

一、雜穀

가、道에 配給組合을設置하여 雜穀의受入及賣渡 [illegible]

나、各郡、府는 [illegible]

配給組合及米穀市場會社의 三位一體에 依하여 統制를하기로하고 移出組合中央會의 事務는 當分間 上市場會社에서 代行하기로되엇다

今日財界 十一日

◆大豆(京城、公定價) 正租(一叺) 玄米(一叺) 七分搗白米 [illegible]

大邱	一六〇斤	[illegible]	[illegible]
裡里	二二〇斤	[illegible]	[illegible]
大田	二四〇斤	[illegible]	[illegible]

◆綿絲 (單位十梱)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綿糸	[illegible]		
綿布	[illegible]		
棉花	[illegible]		

京城物價 十一日

[illegible]

現物部分高

現物은 亦是 部分的으로 買氣가잇서 油貝鐵이 二圓高인九十圓 同新이 二圓五高인 四十八圓五로 獨著하엿고 鎔州窒平 九曹 松竹等도 一、二圓高로 强調를示하엿다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朝鮮內株式

鮮銀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殖銀新	[illegible]	京春鐵	[illegible]
朝鐵	[illegible]	同四新	[illegible]
金剛電	[illegible]	同新	[illegible]
京南鐵	[illegible]	漢水電	[illegible]
京電新	[illegible]	西電	[illegible]
南電	[illegible]	中央絹	[illegible]
國產自	[illegible]	製鍊	[illegible]
無煙炭	[illegible]	小林新	[illegible]
全鑛	[illegible]	三菱商	[illegible]

政局이 이것을 歡迎하는側도 잇서 政局不安은 반드시 賣材料로 되어잇는것갓지도 안타 그러므로 政局安定을 보기까지는 關門附近에서 持合을 거듭하다가 新內閣의 性格如何를 거리로잡으려는衆議 쓰고잇서 不透明市勢로 다시 活動을 開始할것이다 但 所謂 强力內閣이 出現하여 投機抑制를 斷行하게되면 하는 不安도 不無하엿다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日物	[illegible]
條件	[illegible]
無月越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大阪金利

日物	[illegible]
條件	[illegible]
無月越	[illegible]
商業手形	[illegible]

銀行券 十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預金高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東京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大阪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金額	[illegible]

鮮油粕·麥粉

◆阪神鮮粕(十鑛) ◆阪神鮮油(百斤) [illegible]

◆日本麥粉市勢(細印 一袋三十九斤)

下關	綠	[illegible]
名古屋	雪印	[illegible]
阪神	一月現物	[illegible]
東京	一月現物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一六分七
對英 一圓이 一志二片四分一
以上朝鮮銀行賣

株式

◆朝取短期◆ (呼値一株單位十錢)

		寄付	大引	高值	低值
新朝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東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鐘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業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紡鐘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物取引日步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棉花 (呼値百斤單位錢)

大阪	前寄	前引	後寄	後引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布 (呼値一反單位厘)

大阪	前寄	前引	後寄	後引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絲 (呼値一斤單位錢)

	前寄	前引	後寄	後引
橫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物D格 一三〇〇

三國志 (65)

韓龍雲 譯
熊超 畫

李傕郭汜의亂 (一)

그소식을 현덕에게 전하는사람이 잇는지라 현덕이 말하되

「여포는 세상의 용맹스런 사람이니 가히나가 마지리라」

미축이 말하되

「여포는 호랑의 무리라 가히 머물르지 못할지니 거두어두면 사람을 상하리라」

「전자에 만일 여포가 연주를 엄습하지 아니하엿스면 어찌 이고을의 화를 면하엿스리오 이제 제가 궁하여서 나에게 오는것이니 어찌 다른마음이 잇스리오」

장비가 말하되

「형님은 마음이 특별히 조로다 비록 그러하나 준비를 하는것이 조흐리로다」

현덕이 무리를 거느리고 성에서 삼십리를 나가서 여포를 마저 맞을 나란이하고 성에들어와 관가에서 예를 마치매 여포가 말하되

「내가 왕사도로 더부러 계교를써서 동탁을 죽인뒤에 이각과 곽사의 난을 만나 판동에 떠돌아다니매 제후들이 서로 용납지 못하고 근자에 조조가 어질지못하여 서주를 침범하매 공은 힘써 도젓을 동웁고 나는 연주를 엄습하여 써 그형세를 나누엇더니 뜻밧게 도리어 조조의 간계에 빠저 장수와 군사를 꺽기고 이제 공에게 돌아와 한가지로 큰일을 도모하고자하노니 공의뜻이 어떠하뇨」

현덕이 말하되

「도공이 새로죽고 서주를 마틀사람이 업서 내가 권도로 고을일을 마러보더니 이제다행이 장군이 왓스니 마땅히 서수를 사양하리라」

하고 인수를 끌러서 여포를 준데 여포가 밧고자 하다가 문득보니 현덕의 등뒤에 운장과 익덕이 노한비츨띠고 섯는지라 여포가 거짓 우스며

「나는 한낫 용맹잇는 사나이라 어찌능히 서수태수가 되리오」

현덕이 또 사양한데 진궁이 말하되

「굿센 손님이 주인을 누르지 안나니 공은 의심치마소서」

현덕이 바야흐로 그치고 잔치를 베풀어 대접한뒤에 처소를 작만하여 편안히 쉬게하엿다

이튿날에 여포가 현덕을 청하거늘 현덕이 관, 장으로 더부러 갓더니 술이 반쯤취하여 포가 현덕을 뒷방으로 청하는지라 관, 장이 따라들어가니 여포가 안해와 딸을 불러서 현덕에게 절하거늘 현덕이 두세번 사양한데 여포가 말하되

「어진 아우는 사양치 말라」

장비가 눈을 부릅뜨고 꾸짓되

「우리 형님은 금지옥엽 이어늘 네가 어떠한 사람이건대 감히 아우라 불르느냐 네가 달려들어라 내가 삼백합을 싸우리라」

현덕이 여러번 장비를 만류하고 운장이 또한 장비를 권하여 내어보내는지라 현덕이 사례하되

「용렬한 아우가 술이 취하여 미친말을 하엿스니 원컨데 형은 어찌생각하지 마소서」

여포가 말이업더니 조금잇다가 초려잔치 여포가 물러나와 현덕을 전송하는지라 장비가 창을가지고 말을달려 오면서

「여포야 내가 너로더부러 삼백합을 싸우리라」

하고 크게 부르지즈니 현덕이 급히 운장으로 하여금 만류하엿다

이튿날 여포가 현덕에게 사서 사례하되

「다행히 공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나 공의 아우들이 나를 용납지 못하니 나는 다른데로 가겟노라」

현덕이 일로하되

「만일 장군이가면 나의죄가 큰지라 용렬한 아우가 잘못한것은 다른날에 사례하려니와 여기서 가까운 소패는 내가 전날에 군사를 둔첫던곳이니 장군이 만일 적은것을 협의치 아니하면 아직 거기에 말을 머무르는것이 어떠하뇨 양식과 군수는 내가 이바지 하리라」

여포가 현덕을 사례하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소패로가서 머무럿다.

조조가 산동을 평정하고 표를올려 조정에 아뢰니 조조의 벼슬을 올려서 건덕(建德)장군 비정후(費亭侯)를 봉하엿다.

그때에 이각은 스스로 대사마가 되고 곽사는 스스로 대장군이 되어 기탄이업시 횡행하되 조정에서 감히 말하는사람이 업는 지라 태위 양표와 대사농(大司農)주준이 가만이 입금에게 아뢰되

「이제 조조가 군사 이십만을 거느리고 모사와 장수가 수십인이라 만일 이사람을 어드면 사직을 붓들고 간사한 무리를 제할지니 천하가 다행일까 하나이다」

임금이 울면서

「짐이 두도적의 속이고 업슨여김을 바든지가 오랜지라 만일 두도적을 베이면 진실로 큰 다행이리란」

양표가 아뢰되

「신이 한게교가 잇사와 두도적으로 하여금 서로 해치게 하겟사오니 그리한뒤에 조조에게 조서를 내려 군사를이끌고 도적을 쓸어업새고 조정을 편안케 하소서」